



강가 모래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국민생활체육회는 유·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취약계층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등 2015년 생활체육 사업추진방향을 7일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국민생활체육회

## 스포츠스타, 체육활동 취약계층 찾아간다

### 2015 생활체육 복지·클럽육성 강화

전·현직 스포츠스타 체험교실 적극 참여  
유·청소년 '0교시 체육활동' 지원도 확대  
전국 2000여 노인시설엔 운동용품 지원  
종합형스포츠클럽 10곳 증설 중 28개로

### 생활체육 7330

스포츠 복지 및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육성기반 마련,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보급, 생활체육 정보제공 확대와 지도자 역량제고.

국민생활체육회가 2015년 생활체육 사업추진방향을 내놔다. 생활체육을 통한 스포츠 복지 강화와 클럽육성 정책 등이 눈에 띈다.

올해는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전·현직 스포츠스타들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스포츠체험교실을 운영한다. 3월부터는 '찾아가는 작은 운

동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 1400여명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새벽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광장 434곳을 운영한다.

유·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아체육지도자 229명을 전국에 배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도할 예정이다. '0교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유·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

토요일에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를 전국 4277곳에서 운영한다. 국토순례, 캠프와 같은 팀 빌딩 프로그램도 늘린다. 지난해 28회에서 올해는 850회로 대폭 확대 운영하게 된다.

어르신 스포츠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전국 2000여 노인시설에 운동용품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실버스포츠종목을 보급한다. 지역 노인 생활체육조직인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17개 시도에서 열리게 된다.

### ●종합형스포츠클럽 28곳으로 확대...동계대축전도 개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0군데를 늘려 총 28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424만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을 2017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한다. 제도개선, 시스템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동호인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를 통해 동호인클럽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통종목의 스포츠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민속씨름을 활성화하고 전통종목을 현대에 맞게 재정립, 보급해 생활체육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세계민족궁대축전의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25개국 300여명을 초청한다.

동계종목의 저변을 위해 2015동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는 한편 동계종목 초·중·고급 강습회를 운영한다. 뉴스포츠 강습과

함께 승마인구 확산을 위한 전국 유소년승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활성화 종목의 경우 국민생활체육회 등록단체 가입을 통해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게 된다.

현장지도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생활체육지도자(2480명), 토요스포츠강사(6000명), 자원봉사자(3000명), 광장지도자(434명), 종합형스포츠클럽매니저(29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지도자 온라인 실기교육 및 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국민생활체육회 임직원, 17개 시도생활체육회장 및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장, 시·군·구 생활체육회장, 체육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날 2015년 생활체육 사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 작통 비아그라, 딱 걸렸어!

복용자 68% 가짜 피해...정품 확인 사이트 개설  
'블루다이아몬드' 접속 후 제품 고유번호로 확인

'작통 비아그라 꼼짝 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가짜 의약품은 단연 '비아그라'다.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답게 세간에 적발된 의약품 밀수 물량의 대부분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가짜 비아그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10명 중 7명(67.7%)이 불법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4명 중 3명이 두통, 현기증,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비아그라에도 의심의 눈길이 간다. 지인으로 부터 선물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이라면 신뢰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의사, 약사 등 의료전문가 뿐 아니라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비아그라엘'(필름형 제제)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블루다이아몬드(www.bluediamond.pfizer.co.kr)를 개설했다. 불법으로 제조·유통되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복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질한 및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정품 확인을 위해서는 제품 패키지에 부착된 스티커의 스크래치를 제거한 후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번호를 '블루다이아몬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하면 된다. 기존에는 제품 패키지에 부착되어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정품여부를 구별했으나 최근 홀로그램까지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품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환자 스스로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가짜 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 : 블루다이아몬드 콜센터 02-317-2387,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 @ajaplo



대구는 개운하고 담백한 국물 맛으로 겨울철 대표 탕거리 생선으로 불린다. 지난달 때 이른 한파와 '서해 대구' 어획량 증가로 마트에서 대구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 겨울별미 대구, 판매량 급증

어획량 늘면서 가격 하락...판매 전년 대비 64% ↑

'대구가 돌아왔다.'

겨울철 대표 탕거리 생선으로 불리는 대구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2014년 12월 대구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7%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판매 호황은 한파와 함께 서해에서 잡히는 대구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인 것으로 롯데마트 측은 분석했다.

국내 3개 연안 앞바다에서 모두 잡히는 대구는 같은 어종이지만 서식지에 따라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동남해 대구'와 서해에서 잡히는 '서해 대구'로 나뉜다. 중국 해역이 주 산란지인 '서해 대구'는 크기가 700g 내외로 동해 연안이 산란지로 크기가 2~3kg인 '동남해 대구'에 비해 작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의 어획량 증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이상기온으로 서해안에 냉수대가 자리하며, 기존 대구의 대표 산지인 동·남해보다 서해에서 잡히는 물량이 크게 늘어난 탓이 크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위판장 중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수협이 지난달 총 1143톤으로 대구 거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난 수치. 2010년 12월만 하더라도 보령수협의 대구 위판 물량은 119톤에 불과했는데, 불과 4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 가격도 저렴한 '서해 대구'의 어획량이 증가하다보니, '동남해 대구'를 포함한 전체 대구 어획량이 줄어도 대구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 덕분에 롯데마트의 지난달 전체 대구 매출 중 700g 내외의 작은 사이즈 매출은 81.7%나 신장해, 전체 대구 매출 신장률(63.7%)을 웃돌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 취급하는 대구 물량 중 서해 대구의 비중은 70% 가량"이라며 "군산 앞바다 부근에 새로운 대구 어군이 발견되는 등 앞으로는 서해 대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 박용범 경륜 상금 새 역사 쓰다

지난해 상금 2억4800만원 최고액 경신



'대세' 박용범(27·18기·사진)이 데뷔 4년 만에 경륜 한 시즌 최고 상금의 역사를 썼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의 '2014 상금지급 자료'에 따르면, 박용범은 지난해 상금 2억4800만원을 벌며 이명현(31·16기)이 2012년 세웠던 상금 최고액 기록(2억3000만원)을 갈아 치웠다. 슈퍼특선급 선수 중 가장 젊은 박용범은 지난해 34승으로 이현구(32·16기)에 8승이 뒤진 다승 2위를 기록했지만 상금이 많이 걸린 빅패치에 강했다. 총 7번의 대상경주 중 우승 2회, 준우승 4회로 600여명의 경륜선수 중 압도적인 성적을 뽑았다. 지난달 열린 연말 그랑프리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4 그랑프리 챔피언 이현구가 박용범에 400만원 뒤진 2억4400만원으로 상금 2위에, '돌아온 마왕' 이육동이 2억2200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상금을 가져갔다. 김주상(2억원)과 유대복(1억8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시즌 상금 2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선수가 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도 30명으로 역대 최다. 성적이 좋은 선수가 더 많은 상금을 가져가도록 상금체계를 개편한 영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재혁 기자

## 현대차, 손목시계로 차량 시동걸고 문 닫는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5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첨단 차량IT 분야 신기술들을 공개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신행 쏘나타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네시스를 전시하는 등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들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한 데 포인트를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신기술은 기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손목시계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워치' 블루링크 시스템이다. 시동 걸기, 문 여닫기,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찾기 기능을 운전자의 목소리를 통

해 제어하고 원격 공조, 전조등 켜기, 경적 울림, 긴급 출동 서비스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 선행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 행동 패턴을 기록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차량용 라이프로그 기능을 탑재, 주행 중 위험한 상황 발생시 스마트 워치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별도의 접촉 없이 운전자의 손동작을 인식하여 다양한 조작을 가능하게 한 3차원 모션인식, 증강현실 HUD 등 첨단IT 차량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토요타, 수소연료전지 특허실시권 무상 제공

토요타자동차는 수소연료자동차(FCV)의 보급을 위해 토요타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약 5680건의 연료전지 관련 특허(심사 서류 중 일부 포함)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료 전지 스택(약 1970건)·고압 수소 탱크(약 290건)·연료 전지 시스템 제어(약 3350건) 등과 같이 FCV의 개발·생산의 근간이 되는 관련 특허를 사용해 FCV의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시장도입 초기인 2020년말 까지 특허 실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AJ셀카, LPG차→가솔린차 변경 상품화

AJ펜터가 운영하는 중고차매입전문브랜드 AJ셀카가 업계 최초로 가솔린구조변경차량을 상품화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솔린 구조변경차량은 LPG차량의 연료계통 부품을 변경해 가솔린차로 연료방식을 전환한 차를 뜻한다. 구조변경완료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 성능테스트 및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만을 AJ셀카유선에 출품해 딜러를 통해 판매한다. 개인고객은 AJ셀카소매센터(가양, 부천센터 등)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현대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공개한 스마트 워치 블루링크 시스템. 시동걸기, 문 여닫기, 원격공조, 전조등 켜기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손목시계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2015년 새해맞이 프로모션

현대자동차가 2015년을 맞아 자사의 대표 중형 세단 '아코트'와 패밀리 미니밴 '오딧세이'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015년형 아코트를 구매할 경우 5년 10만km 서비스 무상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아코트 2.4와 아코트 3.5 두 가지 모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밀리 미니밴 오딧세이 구매 고객에게도 5년 10만km 서비스 무상 쿠폰을 제공한다. 모든 혜택은 1월 등록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편지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